



황강, 성급 지도간부 중앙 8 항 규정 심입관찰 학습교양 독서반에서 강조

완강히 박투하고 단결분투하는 강대한 힘을 응집시켜 학습교양 성과를 고품질 발전의 실제적 성과로 전환해야

호옥정 주국현 출석

중앙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길림 성당위는 하루 반 동안 성급 지도간부 중앙 8 항 규정 정신 심입관찰 학습교양 독서반을 개최하여 당의 작풍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문술을 진지하게 학습, 터득하였으며 중앙 8 항 규정 및 그 실시세칙과 형식주의를 정돈하여 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약간의 규정을 통독하였다. 4월 22일 오전, 성당위 서기 황강은 독서반 연구토론회를 소집 사회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바 분초를 다투는 책임감과 긴박감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기세를 몰아 과감하게 혁신하고 열심히 일하며 우수한 작풍으로 완강하게 분투하고 단결분투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 학습교양 성과를 길림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는 실제적 성과로 전환시켜야 한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 성정협 주석 주국현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앙 제4 순시조 관련 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지도하였다.

회의에서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성 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성감독위원회 주임인 사문빈이 주제발언을 하고 중앙 8 항 규정 정신 핵심요의와 실천요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여러 성급 지도자들이 각기 현장 발언을 진행하고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학습 심득과 체험을 교류하였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 독서회에서 여러 성급 지도자들은 태도가 진지하고 학습에 몰입했으며 인식이 깊었고 조치가 실무적이었는바 사상리론적 재무장, 당성 수양의 재단련, 규률 작풍 재향상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앙 8 항 규정을 제정 실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두드러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돈했으며 기층 부담 경감 사업을 심화, 확장하고 당풍과 정풍을 일신했으며 사회적 풍조와 민풍은 지속적으로 좋아졌다. 이로써 우리 나라 정치생태와 사회풍모가 깊이 개선되었으며 경제와 사회 발전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하는 데 강력한 작풍 보장을 제공했다. 12년 만에 당중앙은 재차 중앙 8 항 규정 정



신을 깊이 관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학습교양을 전개함으로써 기풍 건설을 끊임없이 틀어쥐려는 확고한 결심을 과시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히 진행중에 있다는 강렬한 신호를 방출하였다. 우리는 당중앙의 심원한 전략적 고려를 깊이 터득하고 중앙 8 항 규정 및 그 실시세칙 정신을 끈질기게 관철하여 실제 행동으로 '두가지 확립'을 충성스럽게 옹호하고 '두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해야 한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 성급 지도부와 지도간부는 '관건 소수'로 '절대 다수'를 이끌고 학습교양을 깊이있고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학습과 사상, 실천과 깨달음 속에서 정치적 충성을 앞장서 확고히 해야 한다. 학습교양을 올해 당건설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리론무장을 강화하고 당성 수양을 련마해야 한다. 신앙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도록 당원간부들을 인도해야 한다. 둘째, 심층적인 학습과 세밀한 대조에서 조사와 정돈 개진을 앞장서 잘 틀어쥐어야 한다. '작풍 건강검진'을 깊이 전개하고 학습하면서 검사

하고 조사하는 것을 견지하고 문제를 확실하게 찾아내며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야 한다. 특히 중앙순시를 계기로 문제 발견 강도를 확대하고 문제 해결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셋째, 열린 교육(开门教育)에서 대중로선을 앞장서 잘 걸어야 한다. 인민대중을 마음속의 가장 높은 위치에 놓고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대중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하며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대중 신민의 부정기 풍과 부패문제를 깊이 정돈해야 한다. 각층의 지혜를 모아 '15.5'계획을 진지하게 계획하고 진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잘 세우며 결코 '이미지공정', '치적공정', '체면공정'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학문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고품질 발전을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개혁개방을 진일보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관건적인 한수'를 잘 리용하여 질적인 효과적 제고와 량적 인 합리한 성장을 고품질 발전의 전반 과정에 통일시켜야 한다. 형식주의를 지속적으로 정돈하여 기층의 부담을 줄이고 각급 간부들이 개혁을 도모하

고 발전을 촉진하며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행합일(知行合一)에서 정치생태를 앞장서 정화해야 한다. 당성 당풍과 당규를 함께 틀어쥐고 기풍을 바로잡고 규률을 엄숙히 하며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뼈를 깎아 독을 치료하고 병근을 제거한다는 결심을 내리고 개혁정신으로 부패가 자생하는 토양과 조건을 제거해야 한다. 행동이 말보다 낮고 몸소 가르치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견지하고 자신을 엄하게 단속하고 많은 바 책임을 엄격히 짊어지며 관할 범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단순함으로 복잡함에 대응하고 깨끗함으로 준결을 받고 공정함으로 인심을 모으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열렸다. 성당위 상무위원 동지들과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정협 지도부 성원, 성법원 원장, 성검찰원 검찰장, 성당위 당건설사업지도소조 성원단위 책임자 동지들, 각 시(주),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 및 각 현(시, 구), 관련 개발구 주요 책임자 동지들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 길림일보

2025년 '서향 길림' 독서 시즌 가동

제 30 회 '세계 독서의 날'을 앞두고 일전 길림성당위 선전부, 문화관광청, 교육청, 공정단길림성위가 주최하고 길림성도서관, 길림성신화서점그룹, 길림성인터넷미디어주식유한회사, 길림성전민독서협회가 주관한 2025년 '서향 길림'(书香吉林) 독서 시즌 행사가 장춘시에서 정식 가동되었다. 가동식은 '문맥을 전하고 서향으로 미래를 열어간다'를 주제로 2025년 '서향 길림' 독서 시즌의 주요 활동을 발표했다. 따라서 전민열독을 통해 길림성의 문화강성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가동식에서는 먼저 전민열독 주제 홍보 영상인 <독서의 힘>이 방송되었는데 지난해 길림성의 전민열독 사업 성과와 하이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아울러 2024년도 길림성 '학교 독서운동' 우수 성과를 전시했다. 지난해 길림성에서 는 료녕성, 흑룡강성, 내몽골자치구와 협력하여 첫 동북도서관역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이는 동북 전 지역을 아우르는 대형 문화 행사였다. 가동식에서는 영상 형식으로 2024년 '길림 좋은 책'과

2025년 '길림 도서관 추천 도서' 목록을 발표했으며 2025년 성 직속 관련 부처와 각 시(주)에서 진행할 주요 브랜드 독서 활동들을 소개했다. 또한 '문명실천 + 독서공간 + 지원봉사' 활동을 가동하여 대중의 문화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전민열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행사 현장에는 사회각계의 독자 대표들도 초청되어 전민열독을 위한 창의를 발표, 전사회에 '책을 사랑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올바르게 책을 읽자'는 호소를 전했다. 이날 또 다양한 현장 상호작용 활동도 진행되었는데 길림성도서관은 성내 공공도서관 및 일부 대학 도서관과 협력하여 길림성 공공도서관 제6회 '책 교환 행사' 및 길림성도서관 제7회 '책 교환 행사'를 개최했고 길림성신화서점그룹과 성도서관은 함께 '길림 좋은 책'과 '길림 도서관 추천 도서' 전시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길림만가'(吉閨万家) 헤민데이터 플랫폼 홍보 활동과 2025년 길림성 '호요'(护苗) 독서책갈피 행동 전시, 저작권 보호 홍보 전시 등 활동도 있었다.

/ 길림일보

5.1절 연휴 국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에는?

4월 15일, 동성관광(同程旅游)은 <2025년 '5.1'절 관광 추세 통찰 보고>를 발표했다.

빅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1절 연휴 국내에서 비교적 인기 있는 10대 관광지들은 북경, 성도, 상해, 곤명, 심수, 광주, 중경, 서안, 할빈, 시양이다.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은 5.1절 연휴를 리용해 '더 멀리 떠나느라' 한국 서울, 일본 오사카, 일본 도쿄, 싱가포르, 타이 방콕은 예약 열기가 높은 5개 해외 인기 관광지이며 푸알라뽀루, 향향, 제주 등도 높은 인기가 있다.

동성관광 플랫폼의 관계자는 "항공권 가격의 변동 범위를 보면 시민들은 4월 25일 퇴근후 여행을 시작하고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휴가를 내고 5월 3일에 돌아올 경우 10일간의 '조장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승객



수 및 항공권 가격의 절정을 피할 수 있고 남은 2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어 '런휴중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인민넷

연길봄철자동차전시회 고객들의 이목 집중

◆ 69개 자동차 브랜드 전시, 그중 신에너지차 브랜드 30% 차지

연길시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주공상업연합회 자동차업종상회와 연변광위자동차무역유한회사가 주관한 2025년 연길봄철자동차전시회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연변광위자동차무역상에서 개최된 가운데 여러가지 하이라이트로 이목을 끌었다.

첫째, 브랜드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신에너지차가 전시장을 빛냈다. 전시회에는 52개 승용차 브랜드와 17개 상용차, 다기능 용도차량 브랜드를 포함한 69개 유명 자동차 브랜드가 전시되었다. 그중 신에너지차 브랜드가 30%를 차지하면



서 역대 최고 비중을 갱신했으며 16개 대브랜드가 최신 모델을 선보였다. 또한 전통 자동차 브랜드들도 분분히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확대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다원화 수요를 충

족시키었다.

둘째,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시민들이 최대의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직접 인하, 금융할부, 사은품 증정 등 혜택외에 '길림성

치환보조금(吉林省置换补贴)', '국가 폐차보조금(国家报废补贴)'을 비롯한 큰 가격 혜택도 있었으며 연길시인민정부에서 제공하는 500만원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향수받을 수 있었다.

셋째, 현장에 신에너지차 시승 체험 구역을 설치해 소비자들이 한걸음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료해에 따르면 연변광위자동차무역성은 2007년부터 2024년 가을까지 선후로 37차의 자동차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합 3만 2,000여대의 차를 판매하고 루계로 인민폐 26억원에 달하는 판매액을 창조했다. 다년간의 노력과 승격을 통해 연길자동차전시회는 부단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면서 자동차 판매상들의 충분한 인정을 받았다.

/ 리전기자



통화현 비닐하우스 경제로 시설농업 발전에 박차

요즘 들어 통화현경제개발구내 통화의강공업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의 목이버섯 온실하우스 양식기지에서는 버섯균주머니 생산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통화현에서는 비닐하우스 양식으로 년간 1만 1,000만주머니의 목이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액이 4,700만원에 달한다.

통화현에서는 비닐하우스 경제로 시설농업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2024년말까지 이미 비닐하우스 2,626채를 건설, 그 면적이 2,153.3무에 달한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남새와 버섯류의 연간 생산량은 6,000톤을 넘으며 총생산액은 7,800만원에 달한다.

/ 길림일보